

美國 大學에서의 作文教育

金 旭 東
(西江大 英語英文學科 助教授)

오늘날 미국 대학교육 중에서 作文教育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다. 대학에서의 영작문 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수해야 되는 필수과목 중에서도 필수과목이다. 이렇게 작문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民主市民養成을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학이 작문교육을 통해 合理的이고 批判的인 인간성을 함양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I

오늘날 미국 대학교육 중에서 作文教育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실로 대단하다. 대부분의 주립대학의 경우 <영어 100> 혹은 <프레쉬먼 영어> 등으로 불리우는 대학의 영작문 과목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택해야 되는 필수과목 중에서도 필수과목이다. 이 과목을 所定の 학점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더우기 몇몇 대학에서는 이런 작문 과목을 이수한 후에도 별도로 작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졸업할 때까지 이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졸업장에 '작문 시험 불합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게 된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들이 이렇게 작문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民主市民養成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

육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의 대학은 이런 작문교육을 통하여 合理的이고 批判的인 人間性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주제가 무엇이든 글을 쓴다는 것은 글 쓰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글쓰기(表現力) = 생각하기(思考力)'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논리적 사고가 없이는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설득력 있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정신력으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알기 쉽게 글을 쓸 수 없다"는 뱀보오그 엔더슨의 말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한 말이다.

II

그렇다면 미국 대학에서 작문교육이 어떻게 실

시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학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州立大學의 경우 작문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일주일에 3시간, 즉 3학점씩 두 학기에 걸쳐 모두 6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학기에 개설되는 작문과목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이라고 한다면, 2학기에 개설되는 작문과목은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과목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많은 대학들은 작문과목을 초급·중급·고급 등의 세 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작문교육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더우기 몇몇 일부 대학에서는 정규 작문과목 이외에 '作文 診療室(writing clinic)'이라는, 좁았는 이름의 작문상담 상담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診療室'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듯이, 작문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작문 강의시간에 교수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이곳을 찾아와, 작문교육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게 된다. 필자가 작문과목을 강의했던 뉴욕 주립대학교(스토우니 브룩 소재)의 경우, '작문 진료실'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진은 10여 명 이상이나 되며, 이들은 작문강의를 일체 맡지 않고 그 대신 상담실에서 작문 지도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 작문 상담실에서는, 학생이 찾아오면 우선 그 학생이 작문 강의시간에 제출했던 글들을 토대로 하여 그가 지니고 있는 작문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어떤 학생은 자기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제가 있고, 어떤 학생은 자기의 이론을 구성하고 有機적으로 조직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또 어떤 학생은 어휘나 센텐스를 적절히 절약하여 經濟的이고도 明確한 글을 쓰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어느 한 학생의 작문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통 한 학기를 단위로 그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작업이 시작된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학생은 정기적으로 작문 상담실을 찾는 것이다.

이 '작문 진료실' 제도는 뉴욕 주립대학의 경우 꼭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의 다른 몇몇 대학들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대학에서 '작문(writing)'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흔히 實用文(practical writing)을 가리킨다. 실용문이라 함은, 創造的 想像力에 의하여 흔히 문학의 형식으로 쓰여지는 창작(creative writing)과는 크게 구별되는 실용적인 글을 말한다. 물론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창작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용문 또한 그것을 쓰는 사람의 창조적 상상력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용문은 어디까지나 창작과는 달리 보다 뚜렷하고 특수한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어느 주어진 命題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論證을 편다든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어떻게 행해지거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한다든지, 어느 상품의 선전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나 논설을 쓰는 등의 일은 모두 이 실용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용문 중에서도 미국 대학의 작문교육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說明文(expository writing)이다. 설명문이란 흔히 독자들에게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혹은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견해 등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종류의 글을 말한다. 특히 좁은 의미의 설명문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잡지의 기사나 신문의 사실과 같은 글을 가리킨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종류의 글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글이며, 미국 대학은 이런 글을 쓰는 훈련을 통하여 역량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대학에서의 작문교육은 주로 이러한 설명문을 쓰는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문기사 작성법이나 시·소설·희곡 같은 문학작품의 創作法을 강의하기도 하지만, 이런 과목은 어디까지나 특수 과목으로서 작문강의와는 별도로 개설되고 있다. <영어 100> 혹은 <프레쉬먼 영어> 등으로 불리우는 작문과목은 주로 앞서 언급한 설명문 작성법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선 설명문을 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原則과

요령이 강의된다. 이 강의에는 「대학 작문」 등의 이름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여 기본 텍스트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작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병행하여, 유명한 작가들의 글로 한데 모아 놓은 흔히 「講讀」 또는 「讀本」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 이런 교재에는 시나 단편소설 혹은 회곡 같은 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재는 주로 논문이나 에세이 같은 실용문, 특히 설명문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어 있다.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잘 쓰여졌다고 인정되는 글들을 읽으며 그 글들에 대하여 자세히 分析·評價한다. 말하자면, 이 텍스트에 실려 있는 글들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다음, 학생들은 실제로 글을 쓰는 훈련을 받게 된다. 우선 교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쓰게 될 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진지한 토의를 한다. 학생들이 앞으로 쓰게 될 글의 토픽은 대개의 경우 讀本이나 講讀 텍스트에서 다루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 혹은 TV 같은 大衆謀體에서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몇해 전 펜실베이니아州 스리마일 아일랜드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미국의 각 매스컴들은 이 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하게 보도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存續 여부에 대한 열띤 논의를 전개시켰던 것이다. 작문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기탄 없이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고갈되고 있는 石油資源에 의한 에너지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불편함과 번거러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오염이나 파멸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학생들간에는 讚反의 議論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열띤 토론이 있는 다음,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근

거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7백 단어에서 1천 단어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쓰도록 요구한다. 제한된 강의 시간에서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써 오도록 숙제로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한 작문을 하나하나 읽으며 작문상의 문제점을 여백에 지적해 주는 한편, 전체적인 의견을 자세히 적어 검수와 함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여기서 학생들이 직접 쓴 작문은 「講讀」이나 「讀本」 텍스트에 수록된 글에 못지 않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수는 학생들이 쓴 글 중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 글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글을 몇 편 골라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교수는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샘플 작문을 읽으며 그 글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클래스의 規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학생들은 한 학기에 이런 작문을 7 편에서 10편 정도까지 쓰도록 요구되고 있다.

III

이번에는 미국 대학의 작문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說明文을 쓰는 데 있어 필요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글을 쓰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도록 요구된다.

- 1)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 2) 말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 3)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할 것인가?
- 4)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5) 과연 그것을 효과적으로 말했는가?

우선 첫째,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글을 읽을 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독자에게 말하려고 하는 토픽이나 主題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그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않고서는 좋은 글을 쓰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글을 쓰는 사람은 먼저, 그 글을 읽는 독자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얼마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이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서 글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대상이 결정된 다음에는, 글의 주제나 토픽이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 대학의 작문시간에는 대부분의 경우 토픽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토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도 한다. 토픽이 주어졌건, 아니면 자유롭게 토픽을 선택하던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토픽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이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토픽에 대하여 確固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언급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면, 글 쓰는 사람은 이 문제에 관하여 찬성이나 반대 입장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하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中立의인 입장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말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의 문제는 독자로 하여금 자기의 이론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個人的 經驗이고, 둘째는 권위 있는 제삼자의 의견이나 견해이며, 셋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原理나 公理이다.

개인의 경험을 증거 자료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의 경험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극히 제한된 집단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다 普遍的인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의 견해나 이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권위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위자의 견해나 이론이 아직도 有效하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는 글을 쓰는 데 있어 가장 核心的인 부분으로, 論旨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뚜렷한 방향과 구성을 말한다.

일단 무엇을 쓸 것인가와 그에 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그 다음의 단계는 그런 자료와 과연 쓰고자 하는 論旨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이런 점검이 끝나면 이번에는 그런 자료를 어떤 종류의 순서에 따라 배열시켜야 된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순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최선의 순서로 배열시켜야 되는 것이다.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미리 계획된 방향이나 目的地를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로 하여금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글의 論旨을 하나하나 따라올 수 있도록,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 조금도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설명문에 있어서 論旨의 進展이나 배열은 흔히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遠心的 進展’이고, 둘째는 ‘求心的 進展’이다. ‘원심적 진전’은 흔히 歸納法이라고 불리우는데, 구체적이고 특수하며 가까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일반적이고 이론적이며 먼 것으로 논지를 이끌고 가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구심적 진전’은 흔히 演繹法이라고 불리우는데, 歸納法과는 반대로 일반적이고 이론적이며 먼 것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이고 특수하며 가까운 것으로 論旨을 이끌고 가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논지의 진전이나 배열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바로 論旨의 統一性(unity)이나 一貫性(coherence), 論旨의 發展(development), 論旨의 組織(organization), 論旨의 轉移(transition) 같은 것들이다.

네째,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단어와 문장, 그리고 단락에 관한 문제들이다.

우선 단어의 경우, 글을 쓰는 사람은 1) 단어 선택이나 語法(diction)에 있어 정확하며 글 전체를 통하여 一貫性 있는 단어를 선택했는지, 2) 토픽과 독자에게 적합하게 다양한 단어를 선

택했는지, 3) 外延의인 單語와 畧의인 單語를 구별하여 단어를 선택했는지, 4) 抽象的인 단어 보다는 具體的인 단어를 선택했는지, 5) 신선하고 적절한 比喩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5) 틀에 박힌 常套語(clichés)와 같은 진부한 단어나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의미가 모호한 단어의 사용을 피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센텐스의 경우에도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은 1) 단어를 절제하여 경제적이며 동시에 강조적인 센텐스를 썼는지, 2) 강조하고자 하는 센텐스 요소를 적절한 위치에 놓았는지, 3) 修飾語 보다는 生動感 있는 동사나 명사를 사용했는지, 4) 受動形보다는 能動形의 센텐스를 사용했는지 5) 중복되거나 쓸데없는 부분을 삭제했는지, 그리고 6) 센텐스의 길이나 패턴을 다양하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단락의 경우에도, 글을 쓰는 사람은 1) 단락의 길이는 적절한 것인지, 2) 각 단락의 기능은 적합한지, 3) 각 단락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토픽 센텐스'가 있는지, 4) 도입 단락과 중간 단락과 종결 단락간의 구별은 명확한지, 5) 각 단락은 계획된 방향을 향하여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6) 단락과 단락 사이에는 적절한 轉移語(transitional words)나 轉移句(transitional phrases)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연 그것을 효과적으로 말했는가?'의 문제는 글을 다 쓴 다음 그것을 읽으면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가는 철자법이나 맞춤법·구두점·대문자의 문제에 시작하여, 크기는 스타일과 내용 전체에 대한 문제까지 여기에 해당된다. *